

격 려 사

전국의 청년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숨쉬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를 창립하신 만해 한용운 대선사의 열반지인 서울시 성북구 심우장을 만해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대사의 가장 탁월한 민족운동의 실천가요, 사상가이셨던 만해 한용운 대선사께서는 굽히지 않는 기개로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로서, 불교의 개혁을 헌신하신 불교개혁운동가로서, 주옥같은 시를 노래한 항일 민족시인으로서 조국과 민족 그리고 불교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초대 총재이신 만해 선사는 “성공보다는 옳은 일인가를 먼저 살피라.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는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먼저 살피지 말고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창립 이래 92년 성상을 살펴보면, 오늘 서울시 성북구 심우장을 만해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커다란 발원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사의 뜻과 정신이 구천만 겨레의 가슴속에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숨쉬어, 민족의 앞날을 밝게 비추어 주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불기2556(2556)년 11월22일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